

Issue Briefing

20140106 vol.120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를 위한 전라북도 후보군과 등재 추진 방안

연구진

장 세 길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zoru21@jthink.kr

신 지 연 (기획조정팀 연구원) jyshin@jthink.kr

정 용 훈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연구원) yhjoung@jthink.kr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를 위한 전라북도 후보군과 등재 추진 방안



- 1. 배경 및 필요성..... 4
- 2. 분야별 등재 현황5
- 3. 최근 등재 경향 및 추진 방향.....7
- 4. 분야별 후보군(안)12
- 5. 정책적 제언.....22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4년 01월 06일 vol.120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림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특히 관광)가 활성화됨. 전라북도의 자연·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등재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임
- 타 지역의 추진현황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등재 추진이 활발함. 지자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유산을 추진하되 특정 지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에서도 타 지역, 타 국가와의 공동등재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지역별 신청 대상 중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결정된 대상들은 대부분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맞춰 기초적인 학술연구가 수행되어 있음. 전라북도 추진 후보군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넷째, 세계기록유산, 세계지질공원, 창의도시네트워크 등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로서, 타 지역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함
- 후보군은 시·군별로 발굴한 후보군, 연구진이 발굴한 후보군, 전문가가 추천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전문가(심사위원) 및 관련 기관(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해 선정했음

구분	후보군 및 추진방안	
세계유산	그리스도교 한옥교회군	전북지역 단독등재 추진
	다(多)종교 화합마을	전북지역 단독등재 추진
	벽골제	국가(일본) 간 공동등재 추진
	부안도요지 장수·남원 가야고분군	잠정목록 등재유산과 연계추진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단독등재 추진
	춘향전	단독등재 추진
	태인고현동향약	단독등재 추진
인류무형문화유산	한지	단독등재 추진
	젓갈문화	국가(동아시아) 간 공동등재 추진
	짚·풀공예	국가(동아시아) 간 공동등재 추진
생물권보전지역	부안군	단독등재 추진
	정읍시	단독등재 추진
	동부권 (무주·진안·장수·순창군)	동부권 지역 간 공동등재 추진
세계지질공원	진안·임실군: 마이산과 진안분지	진안·임실군 공동등재 추진
	고창·부안군: 갯벌과 변산국립공원	고창·부안군 공동등재 추진
창의도시네트워크	남원	단독등재 추진

- 등재를 위해서는 첫째, 유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둘째, 민관추진체를 구성하고 등재추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야 함. 셋째, 국내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네트워크 등에 가입해야 함. 다섯째,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와 공동등재를 적극 활용해야 함. 여섯째, 도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끝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특히 관광)가 활성화됨.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연·문화 유산을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강릉단오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ICCN이라는 국제기구 결성을 주도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음
- 자연·문화유산과 관련해 유네스코에 등재 가능한 분야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¹⁾, ‘창의도시네트워크’ 등 6개임

〈표 1〉 유네스코 등재 및 지정분야별 개념과 사례

구분	후보군 및 추진방안	
세계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 •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음 	종묘
세계기록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 	훈민정음
인류무형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는 1997년 제 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 채택 •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체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 	김장문화
생물권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설립된 인간과 생물권(Mam of the Biosphere: MAB)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됨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현재의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틀 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지정 	고창
세계지질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로서, 적당한 크기와 범위 가지고 있으며, 자연, 인문, 사회, 역사, 문화, 전통 등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 •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제주
창의도시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의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돕고, 이러한 발전 경험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 • 7개 분야: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전주 음식창의 도시

- 분야별로 대상이 다르고 선정기준도 다르지만, 관광활성화가 대표적인 등재효과라는 점에서 유사함.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된 지역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식되는 효과를 발생시킴
 - 등재 이후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혜택은 없이 지자체 의무만 가중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지역도 있으나,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이 등재로 인해 얻어지는 지역 활성화 효과는 지자체의 의무를 상쇄하고도 남음
 -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주도의 보존·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음

1) 유네스코는 지질공원 지명제도가 없고, 세계지질공원망(Global Geoparks Network: GGN)에 가입하면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국가지질공원 세계망(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 GNNG)에 자동으로 가입됨

〈표 2〉 유네스코 등재효과에 대한 분야별 사례

구분		후보군 및 추진방안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 등재 후 두 역사마을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 2011년 11월말 안동 하회마을은 99만 명, 경주 양동마을은 37만명 방문. 등재 전인 2009년도 동기간 대비 하회마을은 37%(73만명), 양동마을은 100%(20만명)이상 관광객 수 증가²⁾
	2010등재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제청이 아닌 민간기구가 주도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등재과정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시켜 시민정신을 다시 하나로 모이는 성과 달성
	2011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 중
세계지질공원	랑카위(Langkaw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질공원 지정
	2007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관광객이 56,011명(2007년)에서 77,725명(2009년)으로 38% 증가³⁾
생물권보전지역	롄(Rh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후, 사과품종 2백종 가지고 있던 소규모 마을을 사과조합으로 결성
	1991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사과를 재배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인증표시하여 판매. 인증표시 판매 후 사과의 값이 전보다 5배 이상 높아져 소득창출에 기여⁴⁾

- 유네스코 등재유산 중에서 전라북도와 관련이 있는 유산은 고창 고인돌(세계유산), 판소리, 매사냥(무형문화유산), 전주(음식창의도시),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등이 있으나, 자연·문화유산의 보고로서 보다 많은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등재 현황

- 우리나라와 전라북도의 분야별 등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내용 중 전라북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유산은 세계유산 1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건, 창의도시네트워크 1건, 생물권보전지역 1건임
 -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된 전라북도 유산은 '서남해안 갯벌', '백제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서원' 등 3건임. '서남해안갯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확정돼 있으며, '한국의 서원'와 관련해서는 국문등재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제출한 상태임⁵⁾
 - '그리스도교 한옥교회군'은 현재 전라북도·김제시·진안군·장수군이 공동으로 신청 추진 중임

〈표 3〉 분야별 등재(잠정목록 포함) 현황: 우리나라와 전라북도

분야별	한국	전라북도		
		등재	잠정목록	현 추진내용
세계유산	10	1(고창고인돌)	3(백제역사유적지구, 서남해안갯벌, 한국의 서원)	그리스도교 한옥교회 (신청 추진 중)
세계기록유산	11	--	해당사항 없음	
인류무형문화유산	16	1(매사냥, 판소리)		
생물권보전지역	5	1(고창)		
세계지질공원	1	--		
창의도시네트워크	3	1(전주)		

2) 환경일보, 2011년 12월12일자 참조

3)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4차 지질공원총회 참가 보고서 참조

4) UNESCO, 2007. UNESCO Biosphere Reserve: Model Regions with a Global Reputation. UNESCO today 참조

5) 2013년,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제4차 회의록 참조

○ 타 지역의 추진현황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표 4〉 분야별 타 지역 추진현황⁶⁾

분야별	타 지역 추진현황	
세계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도, 충청도, 전라남도: 한국의 전통산사 공동등재 추진(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경상남도: 김해·함양의 가야고분군(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통영시: 통제영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한성백제유적(풍납·몽촌토성 중심), 관우관련 신앙공간(동관왕묘 중심), 대한제국시기 정동 근대유산 	
세계기록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4년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확정), 동여도와 혼일강리역대국 지도 등 2014년 등재 신청 대상(미선정 후보): 연행록, 4.19혁명 관련 기록물, 대명률, 기미독립선언서, 박씨가 일기, 지구전요,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조선의 금속활자 	
인류무형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연등회와 발우공양 경상남도: 진주 검무 전라남도: 진도의 동아시아 장례문화(공동등재 추진) 충청남도: 동아시아 줄다리기(공동등재 추진) 제주도: 해녀 	
생물권 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울진 왕피천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 비무장지대(DMZ) 	
세계지질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울릉도·독도(2012년 국가지질공원 확정) 광주시: 무등산(현재 인증 신청)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중심의 평화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2013년 국가지질공원 확정)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유네스코 창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청주시, 파주시, 통영시 공예·민속예술: 대구시, 안성시, 강릉시 미디어아트: 광주시, 춘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통영시 디자인: 김해시 영화: 부산시, 대전시

- 첫째,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등재 추진이 활발함. 지자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유산을 추진하되 특정 지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에서도 타 지역, 타 국가와의 공동등재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지역별 신청 대상 중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결정된 대상들은 대부분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맞춰 기초적인 학술연구가 수행되어 있음. 전라북도 추진 후보군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넷째, 세계기록유산, 세계지질공원, 창의도시네트워크 등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로서, 타 지역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함

6) 타 지역의 추진현황은 언론보도 또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지자체 자료를 참조해 연구진이 정리한 것임

3. 최근 등재 경향 및 추진 방향

1) 세계유산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세계 'Only One' 만을 등재함. 따라서 유산의 경관이나 학술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탁월하며, 그러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에 등재를 추진해야 함
- 세계유산 등재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자연·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특정 지역의 문화재를 단독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서원', '가야고분군', '서남해안갯벌', '한국의 전통산사' 처럼 한국을 상징하는 유산을 설정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문화재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표 5>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연도	세계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1994년		강진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1997년	창덕궁, 화성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	
2002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2007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9년	조선왕릉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대곡천 암각화군, 서남해안갯벌, 중부내륙산성군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염전
2011년		낙안읍성, 우포늪, 외암마을, 한국의 서원
2012년		한양도성
2013년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한국의 전통산사

- 따라서 지역유산을 단독으로 등재할 경우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면서 기존에 등재된 유산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 유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되 세계 유일(Only One)의 특성을 지녀야 함. 그런데 최근 경향만 놓고 보면 단독등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유사 문화재를 엮어 공동으로 등재하거나, 타 국가와 공동으로 등재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세계기록유산

- 총괄기관인 문화재청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보다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록유산을 평가해 등재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진정성(authenticity), 독창적이면서 비대체적(irreplaceable) 특성, 그리고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 세계기록유산은 국가별로 2년마다 2건씩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민간단체 주도로 등재된 이후로 문화재청은 근·현대사 기록물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2013년부

- 터 문화재 1건, 근·현대사 기록물 1건씩을 국가 대표후보군으로 선정해 등재를 신청함
 - 기록물은 소유자가 개인, 정부기관, 단체 등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대국민공모를 통해 신청 대상을 선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개인단체도 유네스코에 직접 신청이 가능함
 -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5월 단체, 종교계, 학계, 정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유네스코에 등재신청했음

〈표 6〉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현황

연도	문화재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
1997년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
2001년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
2007년	조선왕조외교	-
2009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誥)경판, 동의보감	-
2011년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 2013년 지자체에서 신청한 등재 후보군을 보면, 근·현대사 기록물이 많았으나, 대부분 세계사적 영향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또한, 광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현대사의 기록물의 등재는 단순히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지역의 정신을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재정립한다는 의미를 가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세계사적 영향을 미친 근·현대 사건 중에서 지역의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물을 발굴·정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근·현대 기록물의 신청이 많으나, 문화재청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와 근·현대기록물을 각각 1건씩 등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적은 문화재 기록물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등재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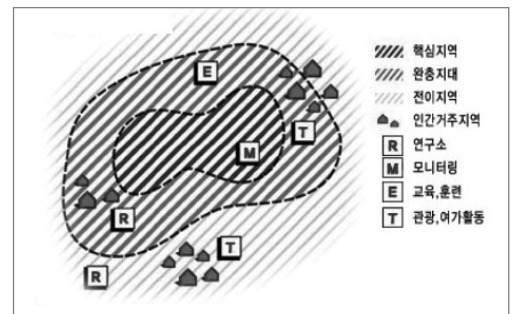
3) 인류무형문화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방법은 첫째, 긴급보호목록이 있음.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의 존속이 위태로우므로 긴급보호가 요구되거나, ㉡ 해당 종목이 심각하게 위협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보호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하므로 극도로 긴급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해 등재함
- 둘째, 대표목록임. 각국이 자국의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관련 공동체 등의 동의와 기타 등재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한대로 등재가 가능하나, 최근에는 국가별로 1년에 1건의 유산만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유산 중 보호 및 활성화(프로그램, 프로젝트, 여타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음
-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이 2012년부터 지역성을 띤 문화유산 등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2012년 아리랑, 2013년 김장문화에 이어 2014년에는 풍물놀이 등 지역성 띠지 않는 유산을 중심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1년에 1국 1종목 등재와 무관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긴급보호 목록에 무형유산을 투입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무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가 아닌 이상 긴급보호 목록을 신청하기가 곤란함
- 우수사례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중에서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정을 추진해야 함
- 따라서 유네스코 대표목록제도를 추진하되, 타 국가와의 공동등재방식은 1국가 1종목 지정이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등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매사냥이 2010년 국가 간 공동등재방식(UAT주도)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기지시줄다리기(충남 주도, 2014년 신청예정), 동아시아 상장례문화(진도 주도, 2015년 신청예정) 등이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무형유산의 전파와 보급 그리고 발전의 단계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 보호에 관심이 깊기 때문에 국가 간 공동등재 방식을 적극 추진함. 다만, 한·중·일 3국의 등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네스코에서는 3국의 공동등재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표목록에 유산을 많이 등재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와의 공동등재를 적극 추진해야 함
- 또한, 이미 지정된 무형문화유산 중 전라북도도 관련이 깊고, 보호 및 활성화(전승)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별해 유네스코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전라북도 관련 종목은 판소리, 대목장, 매사냥으로, 생활 속 전승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판소리 전승(전북도립국악원 및 사설전수관, 다양한 공연활동 등), 또는 한옥 생활화(한옥마을 조성, 한옥 교육 및 신한옥개발, 인력양성 등) 측면을 부각하는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4) 생물권보전지역

-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성은 없지만, 세 가지(보전, 발전,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에야 함.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으로 구성되며, 핵심지역은 반드시 국내법으로 보호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함
 - 핵심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목적 충족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춘 법적으로 구성된 지역
 - 완충지대: 보전목적 저해하지 않는 활동 지역으로, 핵심지역에 인접하거나 둘러싸면서 명확히 구분되는 지역
 - 전이지역: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 실행이 장려되고 발전되는 바깥의 지역
- 등재신청서는 매년 MAB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MAB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등재를 결정함
- 울진 왕피천, 울진·삼척 금강송, 비무장지대(DMZ), 창녕 우포늪 등이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들의 수동적인 참여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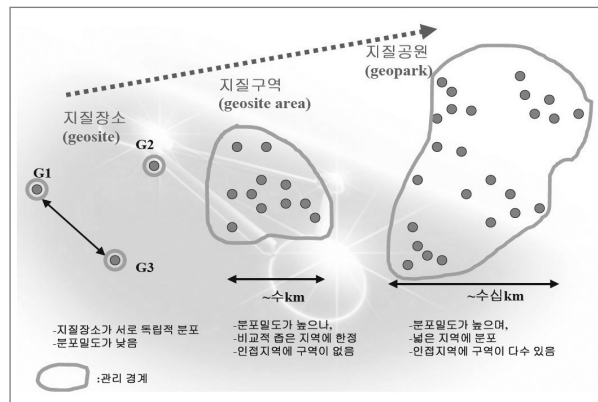


〈그림 1〉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도

- 지역주민들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 보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함
-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실무 추진단을 구성함.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로고(인증마크) 제작 사업과 생태관광(특화마을 시범사업 등) 사업을 추진 중임
- 유네스코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를 위해 기존 지정지역과 연계하는 것을 우선시함. 전라북도에는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측면에서 인근지역인 부안과 정읍 등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유리함
- 등재 신청 시 ‘보전’이라는 단어로 인해 추가적 규제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5) 세계지질공원

-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지역의 보존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매년 국가별로 2개소씩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함
- 지질공원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 지방의 경제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주로 관광을 통해서) 넓은 곳이어야 함.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원면적 100km² 이상, 지질명소 20개소 이상, 자체 평가표의 각 항목별 배점이 50%이상 등이어야 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등 기존의 유네스코 등재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됨
- 전라북도는 지질공원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질자원들이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하며, 지질자원들을 명소화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등재 신청은 국가별로 매년 2개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타 시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함. 특히 제주도 사례(2007년부터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까지 3년 소요)처럼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됨



〈그림 2〉 지질공원의 개념도

6) 창의도시 네트워크

- 가입 희망 도시는 먼저 7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문화적 전통, 문화 분야의 시설이나 산업기반, 교육 및 연구활동, 인적자원과 같이 도시가 보유한 문화자산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도시의 특색과 독창적인 발전 전략을 창의적으로 담아내야 주목을 받음. 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임
 - 해당 도시의 역사와 경제·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설명하고,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의 특화된 산업이나 정책 등을 부각하면서 창의도시 가입 이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 비전과 연결시켜야 함
-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유네스코 본부가 후보 도시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국가위원회에 지지 여부를 물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서 준비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14개 시군의 문화자원을 7개 분야로 분석하고, 이를 문화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시 지역을 선정해야 함
 -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시'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고 '군' 지역은 신청이 불가함
-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정 받은 분야는 경쟁력 측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천이 공예도시로 지정받았는데, 이천을 능가하는 공예산업이 성숙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움
- 전라북도 문화산업 분야 중에서 창의도시 분야와 관련해 (음식을 제외하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공예, 디자인 분야 제외)는 음악(남원-판소리, 풍물)과 문학(군산-근대문학, 남원-고전문학, 최명희 등)을 꼽을 수 있음. 이 중에서 문학은 역사성은 있으나, 현 시대에서 산업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며(파주출판단지를 능가하기 어려움), 이 정도의 자원은 우리나라의 타 시군에도 많음. 전라북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음악으로,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표 7〉 분야별 신청주기 및 신청기한, 신청절차

분야	신청주기/기한	절차	
세계유산	주기 : 매년 기한 : 2.1까지	〈국내〉 문화재청에 신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제〉 ICOMOS/IUCN 심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
세계 기록유산	주기 : 매2년마다 기한 : 격년 3.31까지	〈국내〉 문화재청에 신청 동산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 심의 문화재청장 대상 유산 선정	〈국제〉 평가 및 최종 심의결정 -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 1차 평가 - IAC심의 - 유네스코사무총장 최종발표
인류무형 문화유산	주기 : 매년 기한 : 3.31까지	〈국내〉 문화재청에 신청 무형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 세계유산분과문화재위 심의	〈국제〉 평가 및 결정 - 등재심사소위원회 평가
생물권 보전지역	주기 : 매년 기한 : 9.30까지	〈국내〉 MAB 한국위원회 심사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 개최 MAB ICC에서 결정
세계 지질공원	주기 : 매년 기한 : 10.1~12.1	〈국내〉 국가지질공원 인증(환경부, 지질공원사무국 심의·결정) ※ 매년 기한 없이 신청 가능	〈국제〉 GGN 위원회 심의 및 평가
창의도시 네트워크	주기 : 매년 기한 : 매년	〈국내〉 분야 결정, 연락책임자 선정 관리그룹·운영위원회 구성 신청서 준비 및 제출	〈국제〉 신청서 준비 및 제출 - 신청서 수정/보완 신청서 최종 평가

4. 분야별 후보군(안)

- 후보군은 시·군별로 발굴한 후보군, 연구진이 발굴한 후보군, 전문가가 추천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전문가(심사위원) 및 관련 기관(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해 선정했음

1) 세계유산

□ 그리스도 한옥교회군

- 그리스도 한옥교회군은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제318호), 장수 수분공소(등록 제189호), 진안 어은공소(등록 제28호), 김제 금산교회(전북문화재자료 제36호) 4개소로 구성됨
- 그리스도 한옥교회군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지닌 초기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예배장소이자 신앙 공동체의 거점지로, 토착화와 기술·경제적인 배경에서 선교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말까지 상당기간 한국 교회건축의 주류 형식으로 존재하였음
 - 그리스도교 전례의 기능과 상징성을 위해 중세 바실리카식 공간을 줄곧 추구하고, 한옥구조와 형식이 이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대응했음. 배치와 내부공간구성에서 유교의 관습과 불교건축의 의장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동서융합의 탁월한 사례이자 한옥이 가지는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잠재력을 확인시켜준 건축물임
- 멀리 떨어진 유산의 통합신청에 대해,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통합관리 체계 수립을 권고함. 한국의 역사마을인 하회와 양동(2010년 등재)도 통합관리 체계인 '역사마을보존협의회'를 구성했음. 그리스도 한옥교회군은 천주교와 개신교 유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4개 지자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학술연구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사진 1〉 익산 나바위성당, 진안 어은공소, 김제 금산교회, 장수 수분공소

□ 다(多)종교 화합마을

- 김제시 금산면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증산교 등 각 종교의 대표적 성격을 가진 성지가 있는 4개 마을(금산·상화·용화·부평마을)이 서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금산마을에는 불교사찰 '금산사'와 '증산법종교 본부', 상화마을에는 1907년에 건축한 '수류성당'. 용화마을에는 1908년에 지어진 '금산교회', 부평마을에는 원불교의 '원평교당'이 있음
 - 금산사는 600년에 창건한 절로, 현존하는 주요 건물은 미륵전(국보 62)·대장전(보물 827)·명부전(冥府殿)·나한전(羅漢殿)·일주문(一柱門)·금강문(金剛門)·보제루(普濟樓) 등이 있고, 석련대(石蓮臺:보물 23)·혜덕왕사진응탑비(慧德王師眞應塔碑:보물 24)·5층석탑(보물 25)·방등계단(方等戒壇, 보물 26)·6각다층석탑(보물 27)·당간지주(幢竿支柱:보물 28)·석등(보물 828)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금산사 일대가 사적 제496호로 지정됨

- 김제 모악산 자락 서편 기슭 동곡(東谷-속칭 오리알터)에 대한증산선불교(大韓甌山仙佛敎)의 본부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증산교 군소 교단의 총 본영임
- 수류성당은 1890년대 호남의 3개 성당 중 하나로, 1907년에 한국 전통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음
- 금산교회의 옛 건물은 1997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로 지정되어,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과 서양식 교회의 특징을 조화시킨 초기 교회 건축의 한국적 토착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임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마을 사례

- 유네스코는 하회와 양동마을이 유교를 이념으로 한 유·무형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계승해온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함. 유네스코는 등재 결의안에서 하회와 양동은 주거 건축물과 정사, 정사(精舍 : 학문과 휴식의 공간), 서원 등의 전통 건축물들의 조화와 그 배치 방법 및 전통적 주거문화가 조선시대의 사회구조와 독특한 유교적 양반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문집, 예술작품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술 및 문화적 성과물과 공동체 놀이, 세시풍속 및 전통 관혼상제 등 주민들의 생활과 신앙에 관계된 무형유산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함. 아울러 등재 결의안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마을과 주민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관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함께 권고함

● 하회와 양동마을 사례처럼, 한국의 종교화합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각 종교별 건축물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한국적 종교화합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계승해온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마을의 특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주민, 지자체, 5개 종교단체를 연결한 민관협의체를 결성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학술연구·등재신청 등이 이뤄져야 함

- 개신교, 불교, 원불교, 증산교, 천주교 등과 마을주민, 지자체가 뜻을 모은 협의체 구성은 그 자체로도 종교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으며,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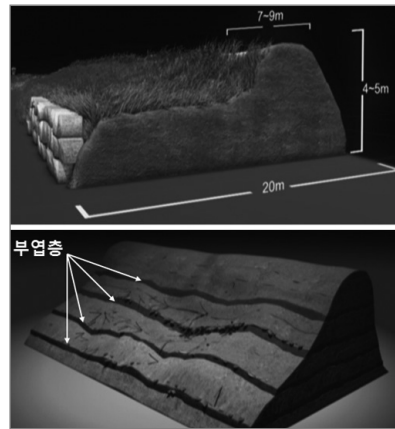
〈사진 2〉 금산사, 대한증산선불교본부, 수류성당, 금산교회, 원불교 원평교당

□ 벽골제

-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리관개시설로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었음. 서기 330년 경에 축조된 농경문화유산으로, 선조들의 치수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하는 유산임
 - 벽골제 축조방식인 '부엽(敷葉)공법'은 제방을 축조할 때 토층 사이에 유기물질인 식물 층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연약한 지반에서 흠벽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고대 수리시설 축조공법임
- 부엽공법은 한·중·일 동아시아 관개 수리시설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임. 일본 오사카 시 남쪽으로 20km에 위치한 사야마이케(狹山池)는 일본 최고(最古)의 수리시설로, 발굴조사 결과 7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야마이케 축조 당시의 제방과 8세기 후반의 증축에 결과로

나타나는 성토에 토층 간에 보강을 겸비할 목적의 식물 층이 삽입되었음이 확인되었음

- 축조시기에 의하면, 벽골제는 일본의 사야마이케보다 3세기 앞서 있으며⁷⁾, 사야마이케 주변에서 백제토기가 대량으로 발굴됨.⁸⁾ 이러한 이유에서 김제시와 일본 오사카사야마시는 2013년 6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을 위한 친선 및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음⁹⁾
- 일제 강점기에 제방을 반을 잘라 간선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벽골제 원형이 훼손되어 있음. 간선수로를 이설하여 원형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사진 3〉 벽골제단면(추정, 위) 부엽법(전주MBC 다큐 참조, 아래)

□ 부안청자요지

- 부안군 유천리·진서리 요지(사적 제69호, 제70호)는 11~13세기에 걸친 고려 중기의 대표적 가마터로서, 우수한 재료와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고려왕실과 귀족층이 사용하는 최상급 도자기를 생산한 곳으로 평가받음¹⁰⁾
- 유천리 도요지에서 발견되는 조각들은 강진의 사당리 당전부락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면서, 백자·진사백사 종류는 훨씬 양이 많고 다양함. 특히 높이 1m 이상의 매병은 크기·무늬·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고려도자기의 새로운 면을 보여줌. 또한 ‘효문(孝文)’, ‘조청(照淸)’이라는 글씨가 있어 고려 도자기 역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함



〈사진 4〉 부안 유천리 출토 청자매병

- 현재 잠정목록에 부안청자요지와 유사한 강진도요지(1994년 9월 1일)가 등재되어 있음. 이런 경우 부안청자요지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규명하여 별도로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추진해야하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강진도요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장수·남원 가야고분군

- 장수 삼봉리 고분군(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 남원 두락리·유곡리 고분군(전라북도 기념물 제10호) 등은 우리나라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은 가야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음
- 전라북도 산간지역의 가야 정치체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6세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백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로 평가받음

7) 벽골 김제, 2013년 6월 제2호 참조

8) 쿠라쿠 요시유키, 김민선 역, 2012, '사야마이케에서 동아시아의 수리 관계시설을 보다', 벽골 김제 특별 기고문

9) 벽골 김제, 2013년 6월 제2호

10) 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지역문화재' 참조

- 이 지역의 특징은 첫째, 백제와 가야·신라의 문화적 접이지대(漸移地帶;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진 두 지역 사이에서 나타난 중간적 현상)로 문물교류와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둘째, 경제적 원동력으로 대규모 야철지(운봉읍 수철리, 공안리 일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고대 봉수 80여개소가 남아 있어 주요한 통신로였음을 알 수 있음



〈사진 5〉 장수 삼봉리고분군 발굴현장

- 2013년 12월, 김해·함안 가야 고분군과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장수·남원 가야고분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정목록에 별도의 개별등재를 추진해야 하며, 잠정목록 등재 성공 후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가야'라는 역사적 동일 테마를 가진 3개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2) 세계기록유산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 동학농민혁명은 독일의 농민전쟁, 중국의 태평천국혁명과 함께 중세 말, 근대이행기에 일어난 세계사적으로 드문 일대 사건임. 이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될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기에 적합한 역사적 자산임
-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로는 동학경전 및 천도교사 등 동학의 창도와 포교관련 기록물, 사발통문, 무장 포고문, 백산대회격문, 동학사 등 고문서 및 고문헌(필사본), 관변기록(양호초토사등록, 전봉준 공초 등) 다수가 있으며, 개인,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2013년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못하고 등재가치 및 가능성에서 '신중검토'라는 평가를 받음
 - 심사결과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와 세계적 중요성에 있어 가치는 있으나, 사건이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하고, 기록물에 대한 연구와 보존 관리 문제를 선결해야한다고 지적함¹¹⁾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등재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문화재청이 지적한 부분을 보충해야 함. 우선적으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연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고, 세계사적인 영향을 객관화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이 필요함
 -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하면서 광주시민이 광주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등재추진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전라북도의 정신으로 계승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11) 문화재청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4차 회의록(2013.11.26) 참조

□ 소설 춘향전

- 소설 춘향전은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온 적층(積層)문학이자, 조선 영조·정조 전후에 남원시를 배경으로 쓰여진 작자 미상의 판소리계 소설임. 현존하는 춘향전 사본(寫本)과 간행본(刊行本)은 총 143종 286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필사기(筆寫記)나 간기(刊記) 또는 장서기(藏書記)가 확인된 것은 90종 183책 즉, 사본(寫本) 42종 54책, 목판본 19종 47책, 활자본 29종 82책임¹²⁾
-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춘향전은 총 13개 외국어로 번역 출간(2013년 12월 12일 기준)되어 있음. 이것만 보더라도 춘향전의 세계사적 영향력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는 희곡, 뮤지컬, 창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음
- 춘향전의 등재 역시 남원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정신적 가치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공동의 추진위를 구성할 필요 있음. 이 조직체를 중심으로 방대한 양만큼 각 지역,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물의 현황과 소장처를 목록화하고,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등재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기록물로서 춘향전의 세계사적 의미를 정립해야 함

□ 태인고현동향약(泰仁古顯洞鄉約)

- 향약(보물 제1181호)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며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하기를 목적으로 하며 마련된 향촌의 자치규약임. 원본을 보고 옮겨 쓴 것으로 총 29책인데, 명칭은 다소 다르기는 하나 내용이 향약자료로 분류되는 문헌이 24책이며, 나머지 5책은 향약 관련 자료들임
 - 이 향약은 정극인(1401~1481)의 『향음서』를 기준으로 하며, 성종 6년(1475)에 시행됨. 이 문헌은 고현향약 회중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음.¹³⁾
- 태인고현동향약은 향촌 사회에서 양반 중심 질서를 유지해나가는 것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는 기록물로, 이상적인 유교사회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있음. 향촌사회와 관련된 흔치 않는 기록 유산으로, 현존하는 향약 문헌으로 양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 가장 많고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음
- 태인고현동향약의 세계사적 의의와 영향력을 직·간접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세계사적으로 영향이 큰 유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함. 유교 관련 국제적 전문가를 초청해 고현동향약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요구됨



〈사진 6〉 태인고현동향약

□ 치명자산성지 동정부부 기록물

12) 이옥성, 강순애(2012), "『춘향전』 간행본의 시통과 서지(書誌)적 특징에 관한 연구" 참조
 13) 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지역문화재' 참조

- 천주교 신자인 유중철(요한)과 그의 처 이순이(루갈다)가 동정서약을 하고 평생 오누이처럼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부부에 관한 기록물임. 이순이(루갈다)가 옥중에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보낸 2통에 편지 내용을 신자들이 작성한 필사본1권이 있으며, 현재 호남교회연구소에서 소장 중임
- 동정부부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특이성이 있고 천주교의 우리나라 전파와 순교라는 종교사적 의의가 크지만, 서한 2통의 원본이 없고 관련 기록물 수량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3) 인류무형문화유산

□ 한지

- 중국 선지, 일본 화지처럼 한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이면서, 선지 및 화지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선지 및 화지와 달리 한지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못함
- 중국은 2009년 '전통 선지 제조기술' (The traditional handicrafts of making Xuan paper)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역시 2009년 '이와미 지방의 종이제조' (Sekishu-Banshi: papermaking in the Iwami region of Shimane Prefecture)라는 이름으로 각각 자국의 종이제조기술을 유네스코에 등재했음
- 문화재청은 특정 지역만의 무형문화유산이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유산을 등재하고 있으나, 한지가 주요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지만의 독특한 제조기술(예, 흘름뜨기)을 정리하고, 전문가, 한지 생산업체,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등재추진위를 구성해 전 방위적으로 활동해야 함
 - 예를 들어, 제주도는 해녀를 등재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제주해녀 등재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치권까지 등재에 나서고 있음

□ 젓갈문화

- 젓 또는 젓갈은 수산물을 소금에 절여 삭힌 대표적 저장성 발효식품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산물과 소금이 생산되나, 모두가 수산물을 소금에 절여 삭힌 식품을 생산·소비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젓갈문화는 쌀문화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젓갈(鰯)은 우리나라 문헌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신문왕 3년(683)에 왕비를 맞이할 때 폐백품목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먹는 젓갈의 종류는 절임원, 원료의 종류와 이용 부위, 제조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100~145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됨
- 아시아 젓갈문화를 연구한 일본 학자 이시게 나옴치(石毛直道)는 젓갈을 공통의 음식문화로 갖고 있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벼농사 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강조함. 즉,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



(사진 7) 일본의 쏫쓰루

에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임
 - 단순히 소금의 짠맛이 아닌 발효미의 감칠맛은 밥에 식미(食味)를 더하여 밥을 씹어 삼키는 것을 쉽도록 도움. 또한, 쌀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은 소화분해될 때 반드시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필요한데, 이때 염장식품인 젓갈이 매우 유용한 식품 역할을 하는 것임



〈사진 8〉 베트남의 느억 맘

- 아시아의 젓갈문화는 크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젓갈을 먹는 대표 국가이며, 중국은 문헌상으로 오래된 젓갈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희귀한 식품이 되었음.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젓갈을 소비하는데, 베트남이 대표적인 국가임

□ **짚풀공예**

- 짚풀공예는 짚과 풀을 재료로 기물을 만드는 공예품의 일종으로, 재료에 따라서 왕골공예, 초물공예, 짚공예라고 함



〈사진 9〉 남원 부절마을 짚공예

- 짚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초가지붕, 가마니, 새끼, 망석, 짚가리, 계란바구니, 종다래기, 도시락망태, 연장망태, 떡서리, 짚독, 씨오장이, 메주 끈, 멧방석, 떡둥구미, 삼태기, 짚신, 소신 등이 있음

- 짚공예는 쌀문화권 지역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공예방식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미약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등재하기에 수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특히 등재 된 이후에 공예상품 개발 등 현대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재에 다른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짚풀공예를 공동등재할 국가를 파악하고, 공동등재에 따른 협약을 체결 한 뒤,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전라북도 짚풀공예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함

4) **생물권보전지역**

□ **부안군**

- 부안군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154.715km²), 야생생물 보호구역(6.06km²), 특정도서지역(152,442m²) 등의 보호지역이 설정돼 있음
-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 전체가 단일행정권에 존재하며, 다양한 육상생물과 해양생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생물자원이 2,356종(국립공원관리공단, 2009)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임. 특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연계와 확대 측면에서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음

분류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물자원
식물상	123과 791종 (식생: 소나무군락 등 11개 분류군)
포유류	6목 13과 19종
조류	16목 39과 103종
양서·파충류	양서류 2목 5과 9종, 파충류 2목 2아목 5과 11종
어류	6목 10과 28종
곤충류	13목 115과 564종
저서대형무척추동물	4문 6강 17목 46과 74종
진정거미류	32과 92속 116종
고등균류	2문 20아문 5강 40강 15목 114속 225종
담수조류	175종류(녹조류58종류, 유글레나류7종류, 남조류4종류, 외편모조류4종류, 황색편모조류3종류, 규조류99종류)
해양식물플랑크톤	56종류(규조류51종류, 황색편모조류1종류, 외편모조류4종류)
해양동물플랑크톤	8개 분류군 21종
해조류	42종
연성기질 저서무척추동물	62종(다모류 22종, 갑각류 18, 연체동물 15)
경성기질 저서무척추동물	9개 분류군 90종

- 부안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 이후 규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 정읍시

- 정읍시에는 내장산 국립공원(38.045km²), 야생생물 보호구역(4.265km²) 등의 보호지역이 있음
- 내장산 국립공원 국립공원의 생물자원은 총 2,224종(국립공원관리공단, 2004)임. 정읍시는 내장산 단풍의 명품화를 위한 학술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장산 벽련암 단풍나무(수령 310년, 근원 직경 104m)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하였음. 내장산 인근의 월영습지는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절대보전등급 I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25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정읍시 역시 부안군과 마찬가지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연계와 확대 측면에서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음이며, 향후 내장산 국립공원과 월영습지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분류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물자원
식물상	106과 335속 576종 (식생: 신갈나무군락 등 9개 분류군)
포유류	5목 11과 17종
조류	14목 30과 69종
양서·파충류	양서류 13종, 파충류 12종
어류	4목 8과 25종
곤충류	주간조사 18목 145과 764종, 야간조사 10목 58과 649종(주간 종합 969종)
저서대형무척추동물	4문 6강 15목 39과 85종
거미류	28과 100속 173종
고등균류	2강 2아강 14목 52과 126속 285종

□ 동부권 : 무주군(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 동부권은 백두대간 핵심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산림이 잘 발달되어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임. 동부권에 포함된 보호지역으로는 덕유산 국립공원(190.897km²: 무주군 179.939km², 장수군 10.958km²), 마이산 도립공원(17.221km²), 장안산 군립공원(6.380km²), 강천산 군립공원(15.844km²)과 야생생물 보호구역(무주군 8.095m², 진안군 4.284m², 장수군 6.858m², 순창군 3.3m²)이 있음
- 무주군의 경우 대부분의 군지역이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 천연기념물(제322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반딧불이를 토대로한 지역 축제 및 마케팅 전략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생물권보전지역 등 재추진을 위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진안군의 마이산 도립공원과 장수군의 장안산 군립공원 등 이들 자연공원의 생물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순창군의 강천산 군립공원은 전국 최초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생태교육 및 학습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추진이 가능한 지역임
- 동부권은 그 면적에 비하여 인구수가 적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예 무주 반딧불이, 진안 인삼, 장수 사과, 순창 고추 등)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생물다양성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측면과 잘 맞는 지역임. 등재추진 시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상호협조가 선행되어야 함

분류	덕유산 국립공원 생물자원	강천산 군립공원 생물자원
식물상	44목 112과 425속 702종, 1아종, 100변종, 8품종 811분류군 (식생 : 16개 분류군)	112과 350속 469종, 65변종, 3품종 537분류군 (식생 : 9개 분류군)
포유류	11과 23종	5목 9과 11종
조류	64종	10목 27과 44종
양서·파충류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9종
어류	4목 9과 17속 20종	4목 6과 8종
곤충류	주간조사 15목 182과 1,361종, 야간조사 31과 523종 (주야간 종합 1,884종)	11목 83과 252종
저서대형무척추동물	5문 16목 44과 93종	4문 6강 14목 39과 72종
진정거미류	23과 49속 66종	19과 37속 44종
고등균류	3문 25목 64과 158속 403종	
담수조류	73종류(녹조류4종류, 규조류69종류)	54종류(녹조류7종류, 남조류1종류, 와편모조류 1종류, 유글레나류 2종류, 규조류 43종류)

5) 세계지질공원

□ 진안·임실군 : 마이산과 진안분지

- 마이산은 주라기에서 백악기 사이에 형성된 분지 내에 퇴적된 암석과 분출한 화성암으로 구성된 산이며, 진안분지는 백악기 후기인 약1억 년 전에 한반도 주변 판들의 상대적 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10km이상 지하여행을 하고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음
- 마이산(명승 제12호)은 백악기의 마이산 역암으로 되어 있어 탑처럼 우뚝 솟은 모양을 이루는 것이 특징임. 풍화표면에는 수많은 풍화혈(Tafoni)이 발달하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크며, 빙정의 썰기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것임. 마이산의 석탑과 탑사는 '전라북도 세계지질고원 추진을 위한 관학 심포지엄'에서 지질 전문가들에 의해 세계지질공원의 컨셉에 들어맞는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음

- 마이산은 매우 독특하고 희귀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지질공원으로 신청하기에는 면적과 지질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산이 포함된 진안분지 전체를 지질공원 대상지로 선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잠재적인 지질자원을 명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질명소와 지질학적 가치 발굴을 위한 지질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고창·부안군

-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1998년 지정)은 해안과 내륙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외변산과 내변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고창군 2013년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창갯벌의 지질학적 가치와 생물의 다양성 등이 이미 입증된 곳임
-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의 곰소만에 위치한 부안줄포만갯벌(4.9km²)과 고창갯벌(10.4km²)은 현재 국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어 가치를 이미 국내·외적에서 인정받았음. 고창군은 이미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고, 고창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계지질공원 대상지 심사 시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해서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와 더불어 세계지질공원 관계들에게 전라북도의 지질자원 홍보가 필요함. 2014년 가을에 개최될 '세계지질연명 회의'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내 지질공원 추진 지역의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세계지질연맹 위원들에게 홍보하고, 전북에서 지질공원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세계지질공원 심사위원을 초대하여 준비상황을 점검받고 지질공원 신청지역을 미리 보여주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6) 창의도시 네트워크

□ 남원시 : 음악창의도시

- 남원은 동편제, 춘향전·홍부전·강쇠전 등의 본향이자, 교방·권번에서 국립민속국악원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 등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지역임
- 남원은 전통국악의 중심지로서 판소리, 풍물 등 국악의 전통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국립민속국악단, 시립국악단, 국악의 성지, 남원농악보존회 등 음악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있고, 매년 춘향국악대전(대통령배)이 개최되고 있으며, 국악예술고등학교와 시립국악연수원 등 관련 교육기관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역량이 충분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업무협력(MOU) 체결이 최우선 필요함. 한국위원회는 국문신청서 심사기관이지만 궁극적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는 영문신청서가 최종 가입 승인되도록 도와주는 협력기관으로, 최근 창의도시 선정 경향 등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민관가입추진위원회의 발족과 대내외적으로 등재추진을 알리는 선포식 등의 행사 또한 필요함.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의 선결조건은 시민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지역협의체 운영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기 때문임

-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남원시가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함. 또한, 국제적 음악행사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개최하고 있는 춘향국악대전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함

5. 정책적 제언

□ 유산의 우수성 입증하는 기초연구 선행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추진 심의결과를 보면, 유산의 가치는 높으나 그것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사항임. 즉, 유산의 가치, 혹은 세계에서 'Only One'임을 증명하는 기초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최근(2013년 12월) 김해·함안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 경상남도는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용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적 가치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등 2차례 연구조사를 진행했음
- 세계유산은 완전성,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기록유산은 해당 기록물의 목록화 작업과 세계사적 영향력에 대한 증명, 인류무형문화유산은 타 국가유산과의 차별화된 특징,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와 지질명소 발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민관추진체 구성과 등재추진에 대한 대내외적 선포

- 유네스코는 거버넌스를 통한 유산보존과 활용을 강조함. 전문가, 주민, 지자체가 공동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동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등재 추진을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함
 - 등재추진 선포는 내적으로 등재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인 참여·협력을 유도하고, 외적으로는 추진하는 자연·문화유산과 전라북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 국내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 협력관계 구축

- 등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MOU체결) 및 공감대를 구축해야 함. 유네스코 본부는 심사를 할 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문화재청 등 국내 기관의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국내 기관과 파트너십 구축은 필수적임
 - 예를 들어, 창의도시 미디어아트 분야를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OU체결하고 신청서 자문, 최근 창의도시 선정 경향 등 정보를 받고 있음. 반면, 모(某) 도시는 국내 관계 기관과 관계 구축에 실패하여 등재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 전문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 국제적 전문가(특히 유네스코 분야별 심사위원 등)를 초청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반드시 필요함.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중간평가와 신청서 작성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등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3년 12월)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2011년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등 세계유산적 가치를 찾기 위한 학술대회를 3회 진행했음

-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은 이미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해 등재까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과정은 향후 본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함
 - 예를 들어, 미디어아트 분야로 창의도시를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도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와 국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정 노하우 및 가입과정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 타 지역·타 국가와 공동등재 적극 추진

- 분야별로 타지역·타국가와 공동등재가 가능한 경우, 전략적으로 공동등재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예를 들어,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산사는 충청도, 경상도, 전남도에 있는 7개 산사를 묶어 공동 등재했음. 또한, 경상북도의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과 경상남도의 김해·함양의 가야고분군도 현재는 따로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지만, 세계유산에는 공동등재로 추진될 전망이다

□ 도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수

- 문화재청은 서남해안 갯벌로 세계유산을 추진 중이나, 부안군(곰소만갯벌)이 공동등재 추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라북도가 빠진 채 추진될 전망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개발에 따른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또는 지역소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임
- 생물권보전지역도 '보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분야며, 세계지질공원도 국립공원과 동일하게 인식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유네스코는 기본적으로 관광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함. 따라서 등재를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생물권보전지역은 최소한의 핵심지역(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완충지대와 전이지역은 모든 행위가 가능함. 또한, 세계지질공원 역시 이미 국립공원 등을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지질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제외(시군 직접 신청)한 5개 분야(세계기록유산은 민간이 직접 신청 가능)는 전라북도를 거쳐 문화재청, 혹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등재를 추진함.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의 역할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이 연구가 전라북도의 제안으로 진행됐다는 점만으로도 전라북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등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특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기대함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